

【 2021 공인노무사 합격 박상빈 】

1 차 시험 점수	노동법	사회보험법	민법	선택과목(경영학개론)
	92/92	76	64	80.89
2 차 시험 점수	노동법	인사노무관리론	행정쟁송법	선택과목(민사소송법)
	276.27	170.34	177.69	199.92
	총점	824.22	평균	61.05

주제1. 수험 시작 동기와 수험 기간

- 직장을 다니다가 전문성에 대한 욕구를 느껴 직장을 그만두고 전업으로 수험에 돌입함.
- 2021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공부를 시작해 8개월만에 생동차로 합격함.
-

주제2. 과목별 학습 방법

- 1차 과목들은 모두 기본이론 인강을 듣고 기출문제를 반복해서 푸는 방식으로 공부함. 1차시험 전 1달 동안 2차 공부는 하지 않고 1차 공부에만 올인함. 1차를 떨어지면 2차도 못 보기 때문에 그렇게 함.
- 2차 노동법 과목은 판례법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암기를 함. 판례가 제시하는 판단요건들을 포스트잇에 적어서 흡연실 창문에 가득 붙여놓는 방법으로 판례를 암기함. 시간을 재고 실전처럼 모의고사를 푼 경험과 모범답안을 보고 셀프첨삭을 한 게 도움이 됨.
- 2차 인사노무관리 과목은 취약과목이었음. 최종락 강사의 0기~3기 강의를 따라감. 기본서에다 단권화를 하였음. 인사는 법학 과목처럼 답안 작성법이 정형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너무 모호했음. 실전에서 55점 이상만 맞고, 다른 법학 과목에서 60점 이상을 득점해 메꾸자는 전략으로 접근함. 기본서 회독을 꾸준히 하면서 시간을 재고 실전처럼 모의고사를 풀고 셀프첨삭을 하는 방식으로 공부함.
- 2차 행정쟁송법 과목은 정선균 박사의 1기~3기 강의를 따라감. 정선균 박사의 1~3기 강

합격을 축하드립니다! 현직에서 더욱 빛나는 노무사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 노무사단기

의로 깊이있는 공부를 함. 기본서로 단권화했고, 회독을 꾸준히 하며 셀프 모의고사, 셀프 첨삭을 진행하며 공부함.

- 2차 민사소송법 과목은 김광수 변호사의 0기~3기 강의를 따라감. 기본서+단문집으로 꾸준히 회독함. 사시출신이라 그런지 답안 작성 방법을 너무 잘 알려주심. 가장 수험적합적인 강사라 생각됨. 공부해야 할 범위는 가장 많았지만, 회독을 꾸준히 돌려나가며 셀프 모의고사와 셀프 첨삭으로 공부함.

-

주제3. 시기별 학습 방법

- 1월~3월까지 0기와 1기 강의를 1.5배속으로 들으며 빠르게 돌림. 각 과목별로 전반적인 내용을 이해하는데에 중점을 두고 공부함. 이 시기 1일 공부시간은 순공부시간 6시간 정도였음.
- 4월 한달 동안은 1차 공부에만 전념함. 기본이론 강의를 듣고 기출문제를 반복해서 푸는 방식으로 공부함. 1일 순공부시간은 4월 초에는 6시간 정도, 1차시험 직전에는 10시간 정도였음.
- 5월~8월까지 2기~3기 강의를 빠르게 따라가며 셀프 모의고사 및 셀프 첨삭으로 공부함. 회독을 꾸준히 돌려봄. 합격을 위한 공부에는 왕도가 없고 꾸준히 그냥 하는 수밖에 없었음. 잘 외워지지 않는 목차, 판례 등은 포스트잇에 써서 휴연실 창문에 붙여두고 담배필때마다 암기하려 했음. 이 시기 순공부시간은 10시간~12시간 정도였음.

-

주제4. 수강했던 노무사단기 강의 추천

- 가장 추천하는 강의는 김광수 변호사의 민사소송법 0기~3기 강의임. 합격을 위한 답안의 논리적 흐름을 반복해서 강조하여 알려주셔서 답안의 기본적 논리가 뇌리에 박히게 됨. 다른 법학과목 답안 작성시에도 도움이 됨. 사시출신이라 남다른 것 같음.

합격을 축하드립니다! 현직에서 더욱 빛나는 노무사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 노무사단기

- 정선균 박사의 행정쟁송법도 도움이 많이 됨. 아주 작은 쟁점도 놓치지 않는 꼼꼼함이 필요하다는 것을 배웠음. 문제에 따라 유연하게 답안을 작성하는 능력도 기르게 됨.
- 최종락 강사의 인사노무관리는 이해를 아주 잘 시켜줌. 다만 경영학 과목 자체가 답안이 정형화될 수 없기에 답안 작성방식을 익히는데 고생함.

주제5. 후배 예비 공인노무사들을 위한 학습 팁 및 하고 싶은 말

- 친형이 변호사 시험을 통과한 바 있어서 공부방법을 많이 조언해 주었음. 그 중 가장 중요하게 작용했던 조언은 “공부는 강사가 시켜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 하는 거다. 강사 따라가려고 생각하지 말고 스스로 합격선에 이르기 위해 공부 수준을 쌓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었음.
- 정선균 박사가 강의 중간에 “불안한 기분이 들어서 공부가 잘 안될 때는, 그럴수록 공부를 해야한다.”라고 말해주었던 것도 도움이 되었음. 공부가 안 될 정도로 불안한 기분이 드는 것은 실제로 공부가 부족하다는 것을 나 스스로가 알고 있기 때문이고, 그러므로 그런 기분을 극복하는 방법은 공부의 절대량을 늘려서 합격선에 이르는 공부를 하는 것 뿐이라고 생각하게 됨.
- 그러므로 합격하고 싶으면 절대적인 공부량, 절대적인 자신의 수준을 끌어올리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함.
- 스터디는 필요없다고 생각함. 스스로 공부하는 것이 중요함. 답안 작성방법은 모범답안의 구조를 잘 분석하는 것으로 충분함. 스터디원을 만나고 하는 시간에 회독을 한 번 더 돌리는 게 더 도움이 됨.
- 체력은 떨어진다 싶으면 홍삼, 영양제 등으로 보충하고, 질 좋은 음식을 많이 먹는 게 중요함.
- 슬럼프가 찾아오면 하루 정도는 푹 쉬고 그 다음날부터 다시 공부를 하면 됨.

- 개인적으로 30대 중반에 중소기업 다니다 퇴사한 상태라, 이 시험에서 떨어지면 내 인생은 끝을 알 수 없는 바닥으로 떨어진다는 생각으로 수험에 임함. 배수진을 치고 죽어라 공부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조성해 놓은 것이 빠른 합격을 가능하게 한 주요한 요인이라 생각됨.